광주 공기업 3곳 자본잠식률 증가 추세

바른사회시민회의, 도시철도·DJ센터·도시공사 분석

영업이익 적자 속 임직원 성과급 5년간 188억원 지급

광주 주요 공기업의 자본잠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내놓은 '지방공사 재무현황 및 개선방안'을 분석한 결과, 광주도시철도 공사의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18.8%로, 2010년(15.4%), 2011년(16.9%)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13.7%로 2010년(10.8%), 2011년(12.3%)과 비교해 매년 상승했다. 광주도시공사의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43.3%로, 2011년 -39.6%보다 감소했지만, 2010년 - 47.2%보다는 증가했다.

자본잠식은 누적 적자폭이 커지면서 자본금까지 잠식하는 현상으로,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이 자본잠식률로 100%면 완전자본잠식이고, 마이너스가 클수록 재무상태는 좋아진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3개 공기업의 부채는 감소세를 보였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2010년 876억원, 2011년 606억원, 2012년 455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광주도시공사도 2010년 6143억원에서 2011년 677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6666억원으로 감소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도 2010년 13억4000만원이던 부채가 2011년 16억10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12년 10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영업이익 부문에서는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는 호전된 반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고강도의 경영 개선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는 높은 무임승차율 등이 원인으로, 정부에서 노인 무임승차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영업이익은 2010년 -710억원에서 2011년 -700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2년 -733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올해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광주도시공사의 영업이익은 2010년 22억원, 2011년 26억원, 2012년 44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영업이익은 2010년 -30억원, 2011년 -27억원, 2012년 -25억원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 밖에 이들 3개 공기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직원 성과급으로 총 188억원을 지급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은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건전한 수준으로, 광주도시공사는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산 영화' 나왔다

'무등산 연가' 27일 시사회… 영상복합문화관

서석대·원효사 등 아름다운 풍경이 앵글에 담겼다. 여기에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가 더해졌다.

무등산을 배경으로 제작된 멜로 영화 '무등산 연가'가 제작을 마치고 시사회를 갖는다. 27일 오후 3시30분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

'무등산 연가'는 아시아문화협동조합과 광주국제영화제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해 제작한 작품. 30분 분량의 중편 영화로 내년에 장편으로 확대 제작해 일반 극장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의 틀거리는 신인 배우 민석과 그녀의 전 여자친구 소희, 그와 작품을 찍게 될 신인 배우 신송의 사랑 이야기다. 민석은 영화촬영을 위해 무등산에 오른다. 예전에 소희와 무등산을 찾았었지만 지금은 헤어진 상태. 소희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감독을 만나기 위해 원효사로 향하던 그는 함께 영화에 출연할 신송을 만나게 된다.

시나리오를 쓰고 메가폰을 잡은 이는 광주 출신 이정국 감독이다. 최진실, 박신양 주연의 '편지'로 잘 알려진 이 감독은 국내 최초의 5·18 관련 장편 영화인 '부활의 노래'로 데뷔했으며 광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도 맡았었다.

주인공은 연극배우 명승훈과 김려원 등 기존 배우와 함께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광주 조선대 4학년 신송씨가 맡았다. 촬영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으며 제작비는 3000만원이 들었다. 이 중 1300만원은 협동조합 사업 개발비로 광주시에서 지원받았으며 나머지는 광주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충당했다.

제작팀은 당초 무등산의 사계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를 제작할 계획을 변경, 이번에 제작된 중편을 장편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시사회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일반 시민 참여와 클라우드 펀딩 등 투자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 감독은 "이번 영화를 통해 광주가 투쟁과 이념의 공간을 넘어,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공간으로 기억됐으면 하는 마음에 멜로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062-228-997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장성군 추진 김황식 전 총리 생가복원 논란

반발 여론 속 김 전 총리 "군 예산 투입 반대"

장성군이 혈세를 들여 김황식 전 총리의 생가를 복원하려다 당사자인 김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전해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생존 인물에 대해 군의 예산을 들여 생가를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까지 더해지면서 장성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최근 황룡면 원황룡마을에 있는 김 전 총리 생가를 복원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을 통과시켰다. 장성군은 1억원은 생가 부지(1320㎡) 구입에, 나머지는 전시관을 만드는 데 쓸 예정이다. 이 집은 1948년 김 전 총리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1950년대부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하는 장성군은 김 전 총리의 생가를 복원해 청렴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최근 문을 연 청렴문화센터에는 김 전 총리가 재직 시절 사용하던 필기구와 옷가지 등 집기가 전시돼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김 전 총리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가 이날 김양수 군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생가 복원에 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사업비까지 마련해 놓은 장성군은 군의회와 협의해 사업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어설픈' 사업 추진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군 관계자는 "청렴문화 체험교육의 한 코스로 김 전 총리의 생가 방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가 주변이 방치돼 전시관으로 정비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했다"며 "일종의 주변 정비 사업인데 생가 복원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다소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대마산단 채무보증 하지 않았다"

정기호 영광군수, 감사원 지적 반박 재심의 요청

영광군이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채무보증을 해줘 수백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감사원 지적〈광주일보 12월17일자 2면〉을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17일 영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군은 대마산단 조성 관련 시행사에 어떠한 채무보증도 하지 않았고 사업비를 상환할 책임도 없다"며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정 군수는 "지난 2010년 2월 민간사업자 측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요구해 관련법에 규정된 일반 사항만을 명기한 미분양용지 매입 관련 문서를 제공했다"며 "금융회사는 부지매입확약 등 신용공여협약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군은 신용공여를 제공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대마산단 조성 관련 채무보증과 미분양용지 매입 의무가 없어 사업비를 상환할 책임이 없음에도 감사 결과에 미반영돼 지역 이미지 실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영광군이 의회 승인도 없이 민간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의 자금을 빌릴 수 있게 채무보증을 해주고 관리 소홀로 사업비 횡령 등의 범죄도 발생했다는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전남 축제 좋아요"

관람객 10명중 7명 만족… "축제 너무 많다"

전남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찾은 관람객 10명 중 7명 이상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발전연구원 송태갑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전남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함평 나비대축제, 담양 대나무축제 등에 참가한 관람객 3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76.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3%에 불과, 지역축제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4%가 '긍정적이다'고 답했으며, 1.2%만이 '부정적이다'고 응답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축제 수가 너무 많다'(49.9%)고 답했고, 전남을 대표하는 축제육성 분야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 축제'(58.7%)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北, 내년 1월~3월 도발 가능성"

김관진 국방장관 밝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7일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곧바로 가차없이 응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전 불사의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장관은 "장성택 처형은 북한의 유일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시적으로는 북한 내부가 강화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민심이 이반되고, 정권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내부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현재 이뤄지는 북한의 철권 공포정치는 계속 갈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 내부의 불안요소와 군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 인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철저히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연합뉴스